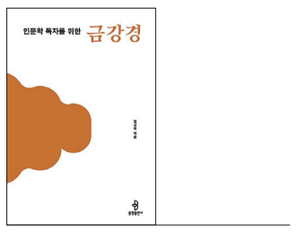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5~7/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스님	이층버스	6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스님	불광출판사
2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스님	정토출판	7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스님	사유수
3	육조단경	육조 혜능	효림	8	인생 수업(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 스님	휴
4	무비 스님의 천수	무비 스님	조계종출판사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5	붓다의 말씀	냐나틸로카	고요한소리	10	보리도차제광론2	쫑카파	나란다

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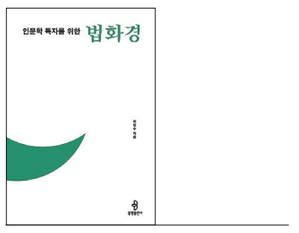
MZ세대도 쉽게 읽을 '금강경·법화경·화엄경' 소개서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김성옥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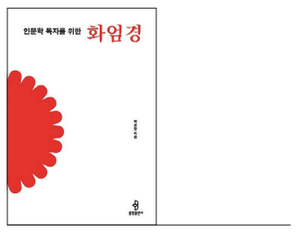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1만6000원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불광출판사/ 1만6000원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박보람 지음

불광출판사/ 1만6000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광출판사 '인문학 불교경전' 시리즈
대중적 '대승삼부경' 개론으로 시작해
필자들 일상언어로 쉽게 이해토록 집필
향후 20권 목표… "불교 문턱 낮출 것"

불교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 중 하나가 '어려움'이다. 산 속에서 면벽 수행해서 도를 이뤄야 할 것 같고, 순 한문인 경전은 읽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히, 한문을 배우지 않은 MZ세대의 경우 불교 경전에 대한 문턱은 높기만 하다. 그래도 불교 경전에 담긴 금구(金句)들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접해볼 만하다.

불교 경전을 읽고 싶은데 어려워 선뜻 손이 가지 않다면 불광출판사에서 첫 선을 보인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리즈는 불교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내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경전 소개서로, 가장 먼저 대승삼부경인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선보였다. 불교 경전을 읽어 보고 싶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몰랐던 입문 독자, 경전을 읽어 보긴 했는데 영 낯설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문학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 〈금강경〉

시리즈의 시작은 〈금강경〉으로 김성옥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부교수가 집필했다. 강단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저자는 "누군가 애써 마음먹은 불교 공부가 낯선 개념과 용어들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다.

저자는 마그리트의 파이프 그림, 무지개의 스펙트럼과 같은 친숙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수수께끼 같은 경전 속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소개한다. 글을 차분히 읽어나가면 알쏭달쏭하던 〈금강경〉의 뜻이 와닿는다.

모든 형상과 이름의 관념을 부수고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말하는 〈금강경〉의 돌직구는 '부처의 법'이라는 관념마저 버리라고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설하신 단 하나뿐인 진리라고 스스로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불교의 가르침, 공(空) 사상을 〈금강경〉은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진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편집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하기에 〈금강경〉은 우리에게 "추구하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붓다이자 우리 이야기 〈법화경〉

〈법화경〉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교화하며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보살의 실천, 즉 보살행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붓다에 대해 통찰한다. 나아가 보살행을 통해 또한 붓다의 가능성을 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혀 주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법화경〉 전문가' 하영수 금강대 불교인문학부 조교수는 이 경전에 담긴 사상을 탐구하며 동시에 그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그 옛날, 붓다는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전했다. 중생의 상황에 맞추어 설한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하고, 그 방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진실'이다. 그렇다면 〈법화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영수 교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되묻는 질문, 바로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경전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 핵심 요의는 결국 누구나 평등하게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조건이 있다. 바로 '끊임없는 보살행'이 그것이다.

결국 〈법화경〉은 무명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잊은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며,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전한다.

"〈법화경〉은 한 마디로 붓다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이며, 그 말은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중에서)

부처님으로 사는 법 〈화엄경〉

'나'의 참모습을 무아(無我)와 연기(緣起)로 바르게 봄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는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은 그렇게 찾아낸 '나'의 참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왜, 어떻게 '나'가 부처님이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화엄경〉은 화엄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누구든 의지해야 할 수행의 지침이자 삶의 근거로 삼는 경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엄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축에 속하는 만큼 원전을 접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공학을 전공하다 불교학으로 관심사를 옮겨 화엄 사상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을 가르치게 된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암호 같기만 한 〈화엄경〉의 속뜻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 낸다.

"〈화엄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함이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부처님임을 알고서 부처님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중에서)

결국 〈화엄경〉은 '나' 그대로 온전한 부처님임을 깨달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 안에 숨겨져 있는 부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 지혜가 〈화엄경〉에 있다는 게 저자의 말이다.

이번 시리즈에 대해 류지호 불광출판사 대표는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일상 언어로 시리즈를 제작했다"면서 "아함경, 유마경 등 앞으로 20권을 목표로 시리즈 발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옥 교수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부교수. 뒤늦게 불교 공부에 마음을 둔 늦깎이로, 2011년 동국대에서 '다르마끼르띠의 자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기인식에 관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논쟁', '자심분별에 대한 원효의 입장' 등의 논문을 썼고, 최근에는 오늘의 문제를 불교를 통해 바라보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영수 교수

금강대 불교인문학부 조교수.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금강대에서 〈법화경〉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분야 역시 〈법화경〉이다. 경전 본연의 사상을 탐구하면서, 한편으로 이 경전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보람 교수

충북대 철학과 부교수. 〈화엄경〉과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화엄종의 사상이 주된 공부 분야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주축을 이루는 의상 스님과 그 법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의 '나'가 조금도 모자람 없는 여래라는 여래출현설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결국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지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체 없음' '비어 있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공'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경전 전체에서 이처럼 공 사상이 넘쳐흐릅니다. –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129쪽

불교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궁극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해탈(解脫)'이나 '열반(涅槃)'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붓다는 다름 아닌 그러한 자유를 실현한 존재입니다. 특히 〈법화경〉은 붓다가 얻은 대자유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25쪽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나 부족한 '나'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불교와 달리 〈화엄경〉은 '나'가 그대로 온전한 부처님임을 깨달음으로써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59~60쪽



01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김성옥 지음, 16,000원)
우리 안의 굳은 편견과 어리석음을 부수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

02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16,000원)
우리의 이야기가 될 붓다의 이야기

03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박보람 지음, 16,000원)
모든 존재가 자신의 참모습대로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해
주요 경전의 핵심 내용만 쏙쏙!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판형
부담 없이 읽어 보는 나의 첫 불교 경전 입문서

- 이 경전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 이 경전은 왜 만들어졌을까?
-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이 경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